



이해하다

상상하다

즐겨보다.

디자이너의 작품집

## 디자이너 이준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무수합니다. 아직 어린 취준생, 멋지고 예쁜  
건 고스란히 알고 싶은 디자이너, 글쟁이, 원예가, 독서가, 아나키스트,  
고양이 없는 애묘가, 어쩌면 마법사. 무엇보다, 인터랙션 디자이너.  
본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디자인으로 소통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색상, 기호, 그리고 레이아웃의 해변에서 노니는 소년

그냥 좋고, 마냥 멋진 디자인. 그래서 그냥저냥 만들 수는 없는 디자인.  
저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오는 작품보다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작업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고, 조금 더 기억나는 멋진 무언가. 그 가치를 이해하고 상상하고 즐기는 저는 디자이너  
이준환입니다.



2017

- 가로등
- 비상길잡이

2018

- Dape
- 낭만트럭
- Design Teatime.



# 가로등

✓ on 2017  
↗ Team Project  
© Contribution 45%

“당신의 건강한 삶을 비추다.”

가로등은 전자 처방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의 회복을 돋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화된 의약품 통계와 의사·약사와의 유연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공공 데이터와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자 처방전을 받고,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사용자는 가로등과 함께라면 더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 색상

단순명료와 믿음직함, 의료 서비스가 가져야 할 특성입니다. 전자 처방전을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을 지녀야 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 그 특성은 도드라집니다. 다섯 살배기 소녀부터 나이 지긋한 노신사까지, 가로등은 모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주력 색상을 시안 계열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어떤 색맹도 구분할 수 있는 청색 계통의 색상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백색을 바탕으로 시안과 군청은 사용자에게 신선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가로등은 분명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소통의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큰 제목 24px

중간 제목 20px

작은 제목 18px

본문 16px

작은 본문 12px

CTA 12px

## 타이포그래피

가로등에 본격적으로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까다롭고 불친절한 가이드라인이 그와 같은 디자인을 낳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닌 구조적 시인성에 집중하면서 또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로등에 쓰인 Noto Sans입니다. Bold, Medium, Regular로 굵기를 한정하여 사용하면서 서체 위계를 탄탄하게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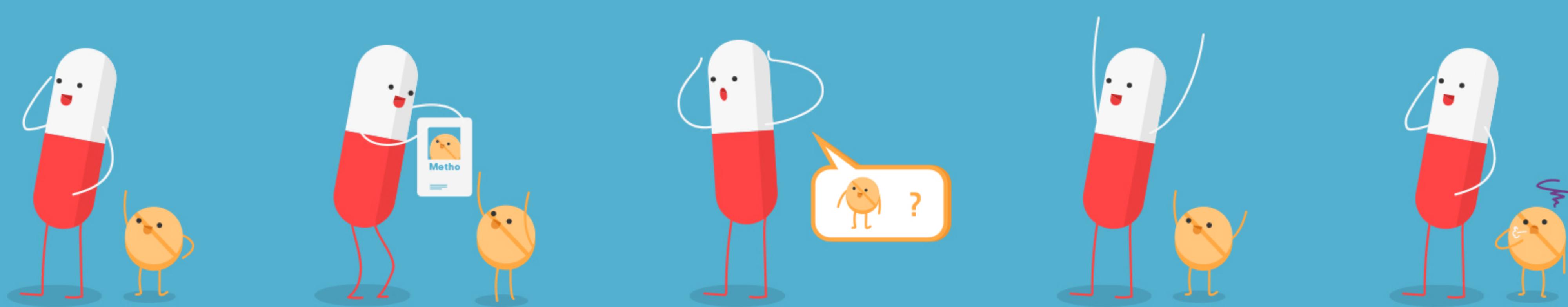
Noto Sans CJK KR Bold

Noto Sans CJK KR Medium

Noto Sans CJK KR Regu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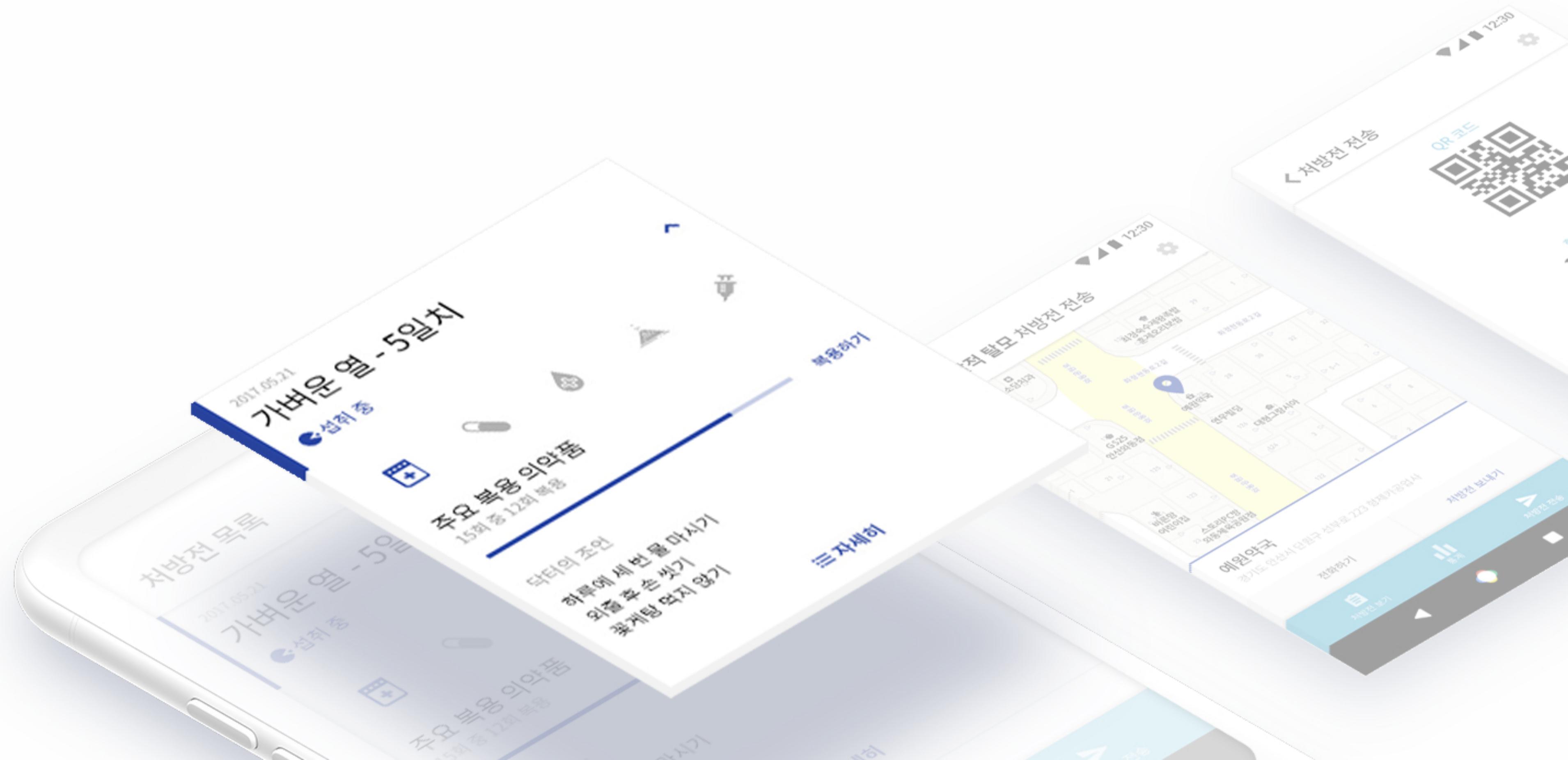
## 캐릭터

프로토타이핑이 막바지에 이를 때, 애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건조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특색을 살리면서 무미건조한 UI를 개선하기 위해 알약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약품 수령 완료 페이지와 같은 확인 페이지에서 이를 활용하여 사용 시나리오에 부담 없이 브랜드를 부드럽게 강조했습니다.



## 레이아웃

전자 처방전 목록은 가로등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부분입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뛰어난 리스트 레이아웃, 각 처방전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카드 레이아웃, 둘의 장단점을 타협한 그리드 레이아웃 사이에서 많은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카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재설계한 카드별 탭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정보를 최대한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겁니다. 정보는 노출하면서 페이지를 넘기는 카드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로등은 보기에도 만지기에도 적당한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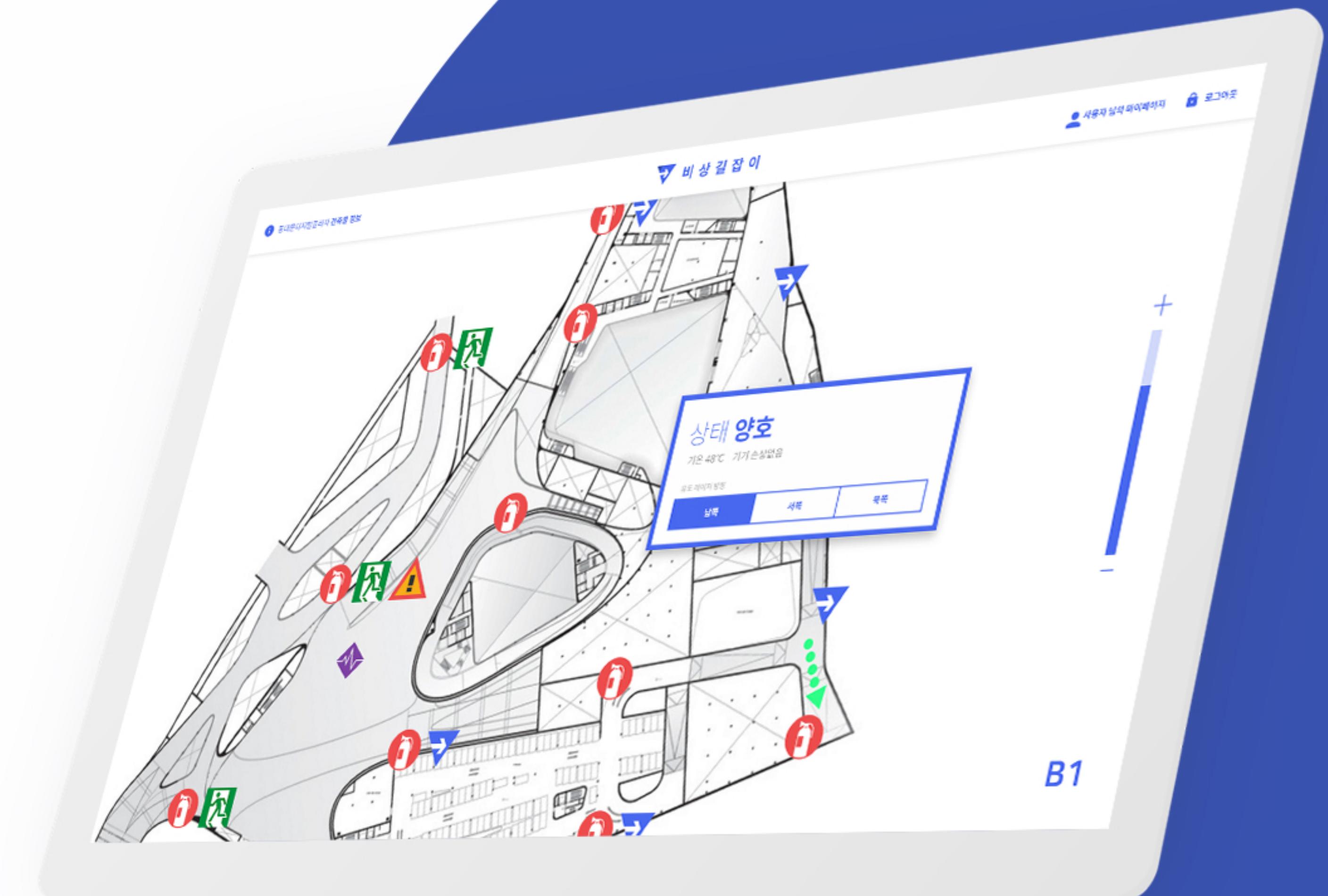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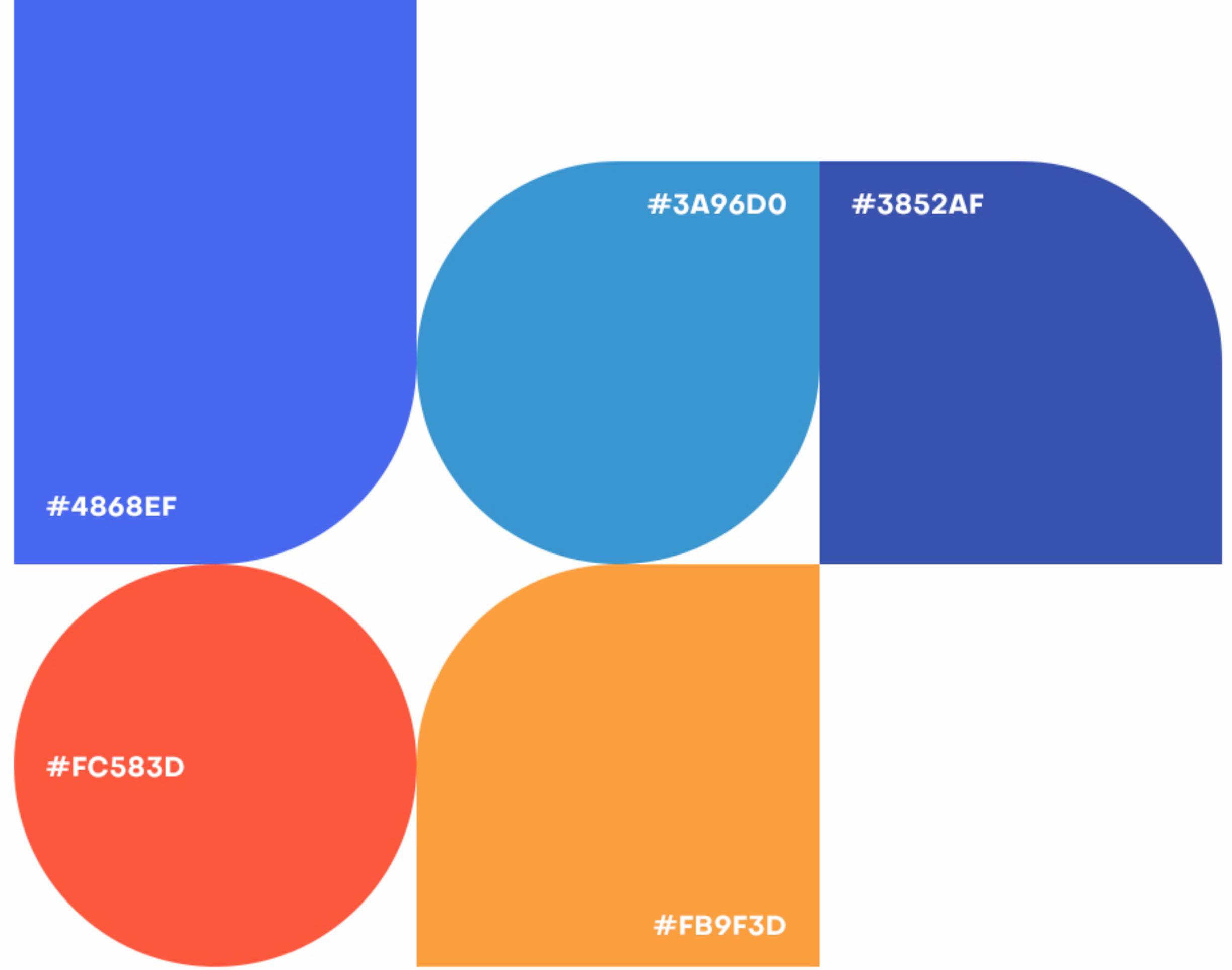
# 비상길잡이

✓ on 2017  
✗ Team Project  
➊ Contribution 35%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이드.”

차세대 비상구 유도등 비상길잡이는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자를 지키는 IoT 시스템입니다. Zig Bee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화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센서, 이를 바탕으로 지능적인 비상구 유도를 수행하는 레이저 유도등,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웹 페이지가 이루는 조밀한 구성은 사용자의 소중한 하루를 지켜냅니다.





## 색상

안정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 차분함을 녹여냈습니다. 선명하지만 가볍지 않은 군청을 주력으로 무디지 않은 색상을 차례로 차용했습니다. 실사용하면서 최대한 단조로운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사용자는 일관되고 완고한 모습을 지닌 비상길잡이에 안도할 것입니다.

단단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비상길잡이의 이미지는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 비상 길잡이

## 타이포그래피

비상길잡이의 웹 페이지는 모든 화면에서 확실해야 했습니다. 제공하는 건물 내 지도, 비상길잡이를 포함한 소방 시설, 그리고 그 상태는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황의 빠르고 명료한 전달이 비상길잡이라는 서비스가 지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목 서체인 나눔스퀘어와 본문 서체인 스포카 한 산스를 구분해 채택한 이유입니다. 구조적인 타이포그래피는 비상길잡이의 만듦새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나눔스퀘어 Extra Bold

나눔스퀘어 Bold

나눔스퀘어 Regular

나눔스퀘어 Light

스포카 한 산스 Bold

스포카 한 산스 Regular

스포카 한 산스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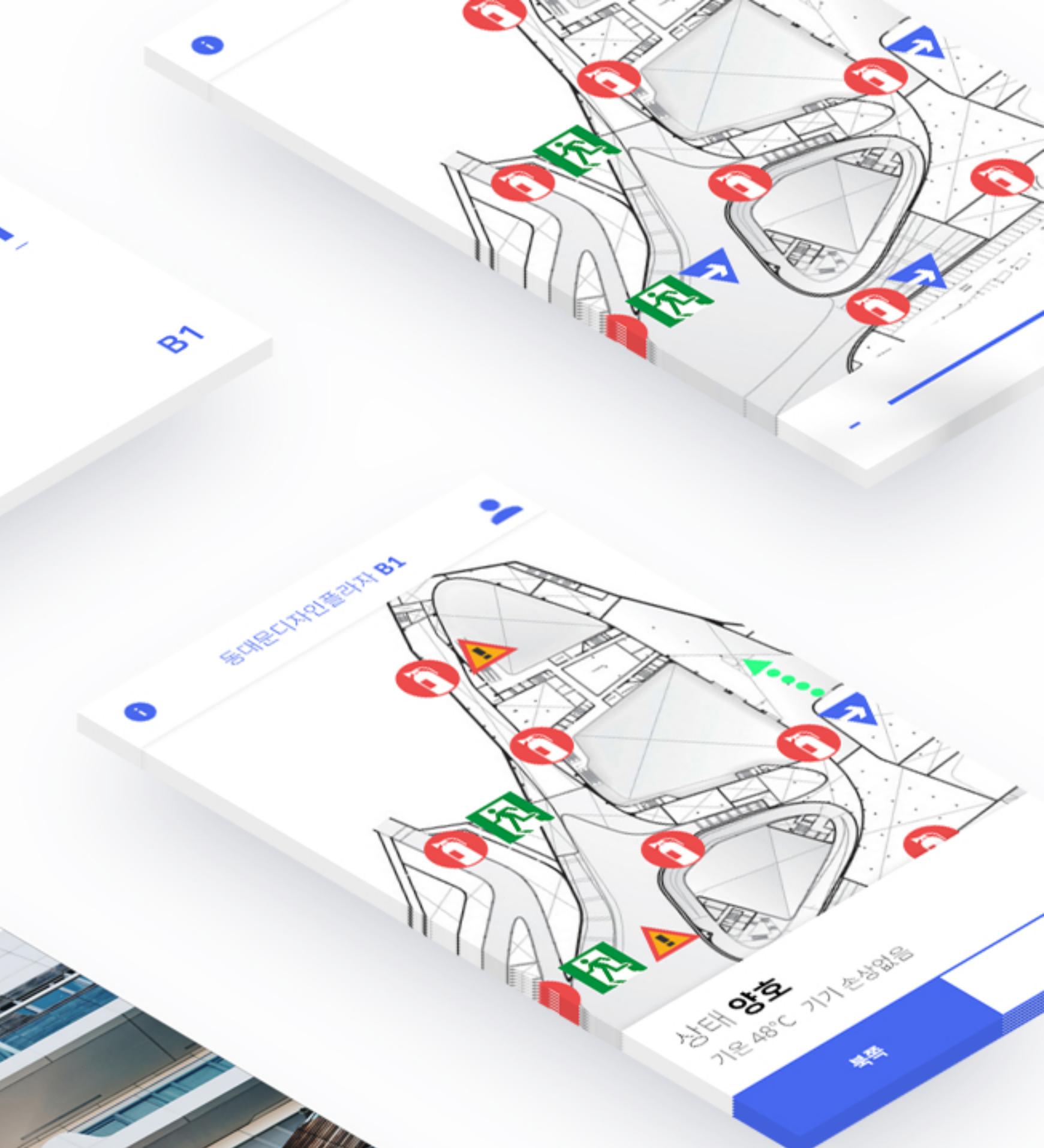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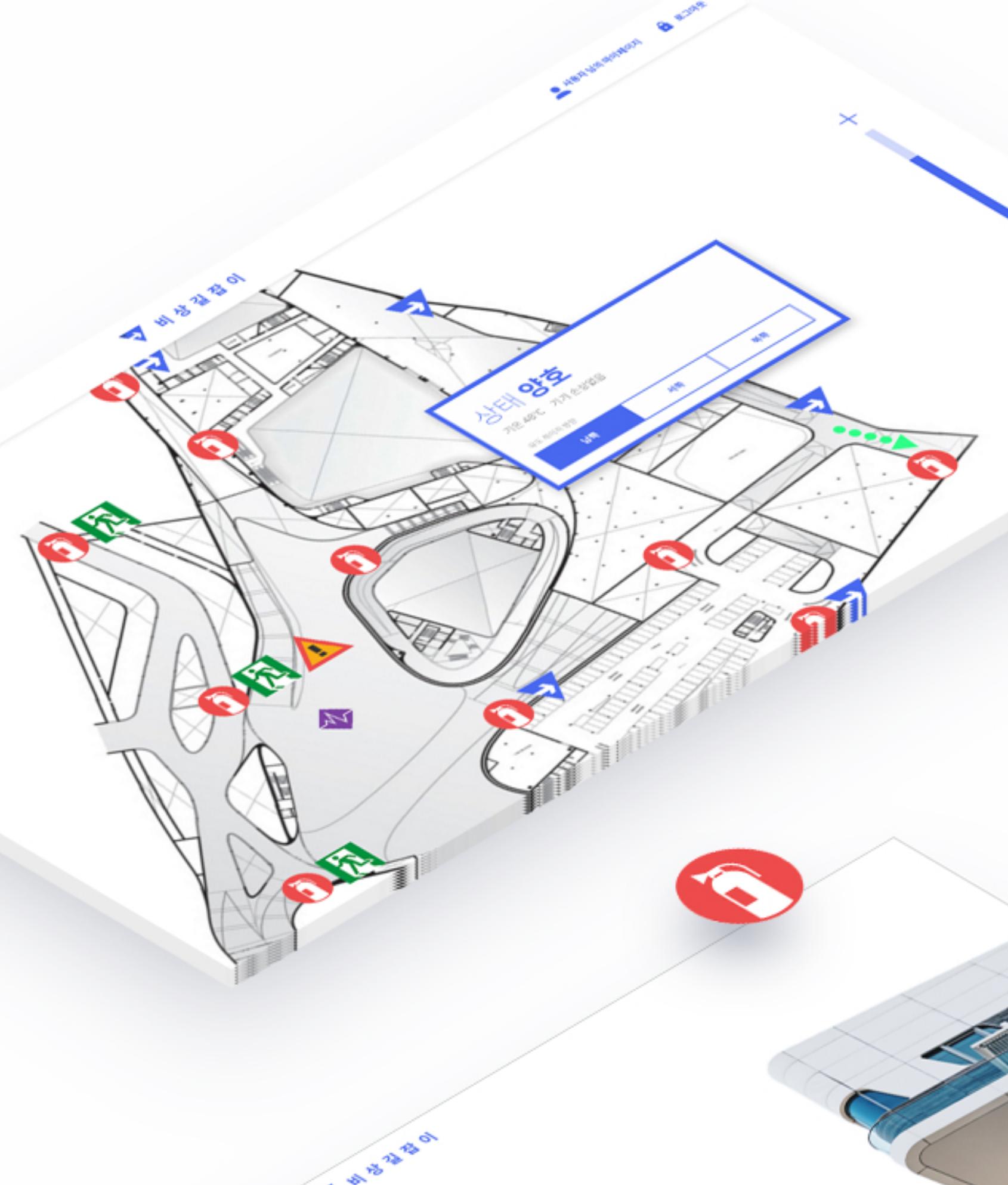
스포카 한 산스 T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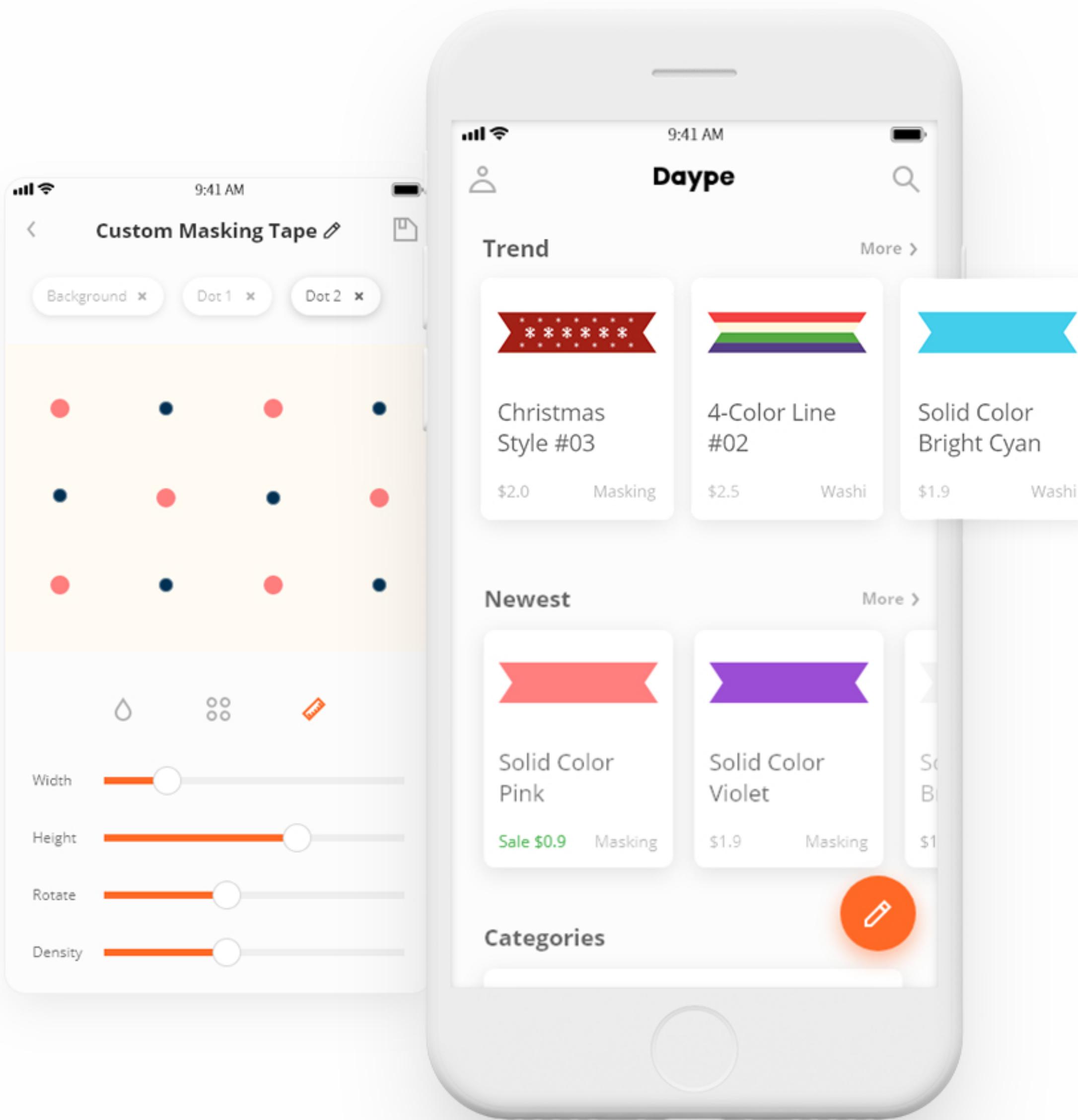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이드

-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요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281  
전화 02)2153-0000  
면적 86,574m<sup>2</sup>  
구조 B3 ~ F4  
공사일 2009.04.28 ~ 2014.03.21





# Dape

↗ on 2018  
▲ Personal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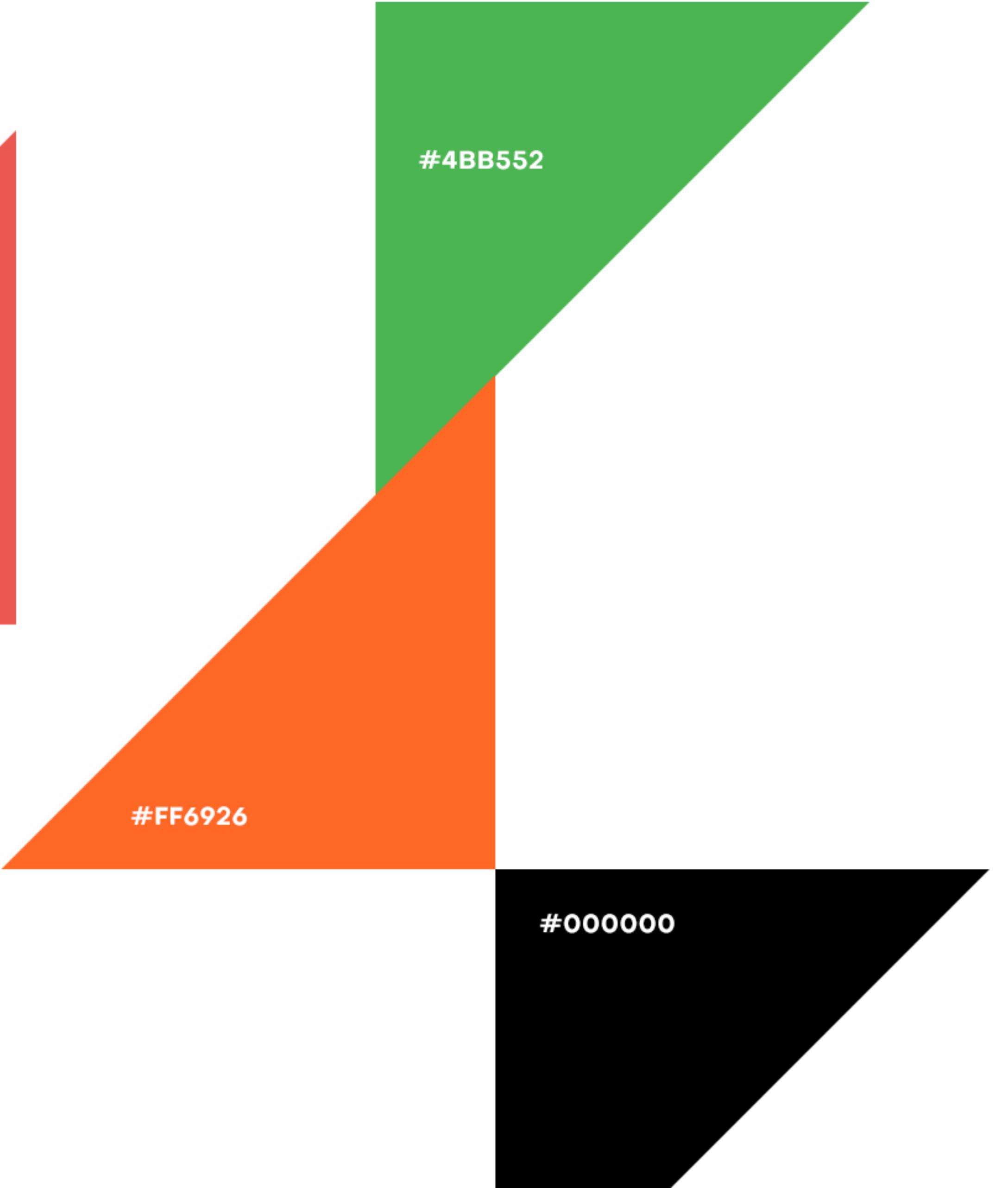
## 데코레이션 테이프 쇼핑 애플리케이션

Daily + Tape. Daily라는 이름의 앱은 마스킹 테이프와 와사비 테이프 같은 다양한 데코레이션 테이프를 매매하고, 커스터마이징한 자신만의 데코레이션 테이프를 주문할 수 있는 쇼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Dape는 사용자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작지만 심미적인 일상 속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Dape로 평범한 회사원은 기상천외한 예술가가, 피곤한 아르바이트생은 자유로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EB5751



#4BB552

#FF6926

#000000

## 색상

Dape의 본질은 자유분방하고 창조적인 일상의 미학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활용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구 난방해선 안됐습니다. Dape의 네 가지 색상은 명확한 것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선명하되 날카롭지 않은 색, 아름답지만 무겁지 않은 색. Dape는 활기차고 부드러운 색으로 가득합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디자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 Open Sans Bold

# Open Sans Semi Bold

# Open Sans Regu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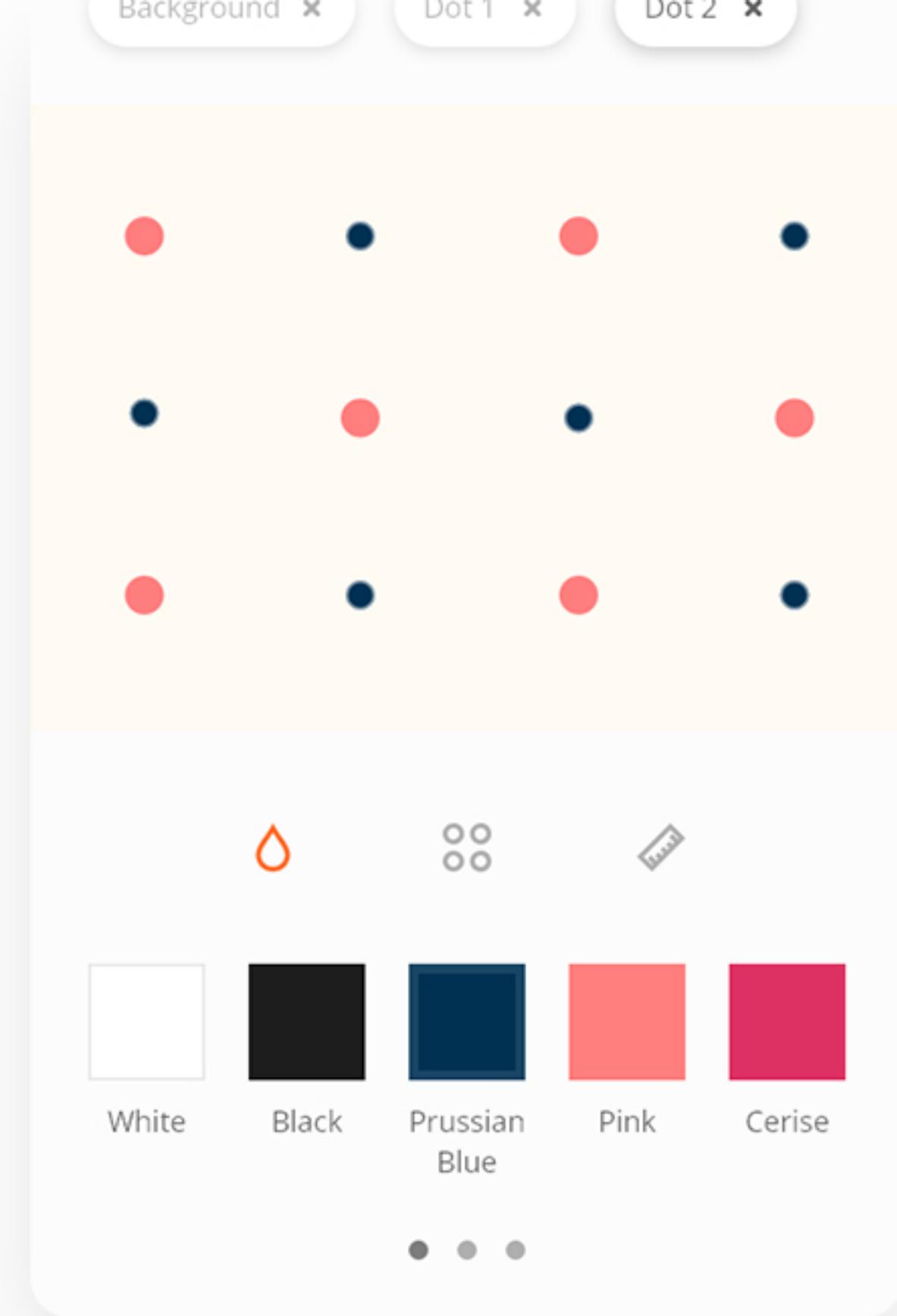
## 타이포그래피

상품의 진열과 테이프 커스터마이징 페이지 등 Dape에는 많은 실험적 요소가 활용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생소한 도구가 상당히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칫 복잡하고 어려운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된 타이포그래피를 설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Open Sans는 간결한 산세리프 서체입니다. 이를 통해 Dape는 독특한 요소를 조화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이콘

타이포그래피의 적극적인 절제는 아이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단순하고 현대적인 라인 아이콘은 모두 8-Point 그리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이콘의 색상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튜지 않고, 페이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반듯한 아이콘은 즐기는 사용자가 Dape의 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Solid Color Pink**  
Masking Tape | Slim(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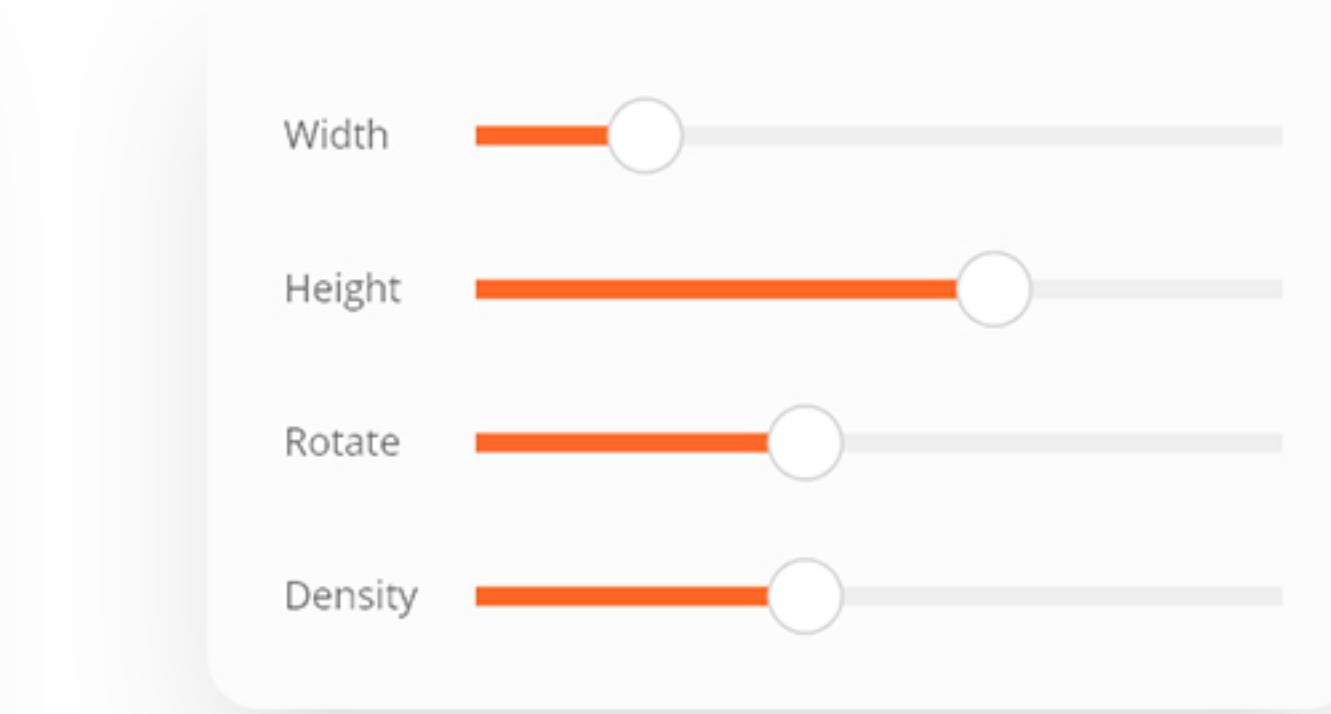
Length: **1m** **5m** **10m**

Amount: **-** **2** **+**

Total: **\$2.2**

**Buy**

This is a product card for "Solid Color Pink" masking tape. It shows the product name, type, and width. It includes length options (1m, 5m, 10m) and an amount selector (set to 2). The total price is \$2.2. A large green "Buy" button is at the bottom.



9:41 AM

**Account**

**Profile**

Christian Andersen

Registered Cards **4**

Registered Address **2**

This is a user account profile screen. It shows the user's name, Christian Andersen. It also displays statistics for registered cards (4) and registered addresses (2).

9:41 AM

**Custom Masking Tape**

Background **x** Dot 1 **x** Dot 2 **x**

This is a screenshot of a "Custom Masking Tape" screen. It shows a grid of red and dark blue dots. At the top, it says "9:41 AM". Below that is the title "Custom Masking Tape" with a pencil icon. At the bottom are three tabs: "Background" (selected), "Dot 1", and "Dot 2".

9:41 AM

**Custom Masking Tape**

Background **x** Dot 1 **x** Dot 2 **x**

**Shopping Cart **4****

**Christmas Style #03**  
\$2.0 Masking

**4-Color Line #02**  
\$2.5 Washi

This is a "Shopping Cart" screen. It shows four items in the cart: "Christmas Style #03" (Masking, \$2.0), "4-Color Line #02" (Washi, \$2.5), and two other items whose details are partially visible. The total count in the cart is 4.

**Custom Tapes **12****

This is a "Custom Tapes" section. It shows a grid of red and dark blue dots. At the top, it says "Custom Tapes" with a count of 12. Below that is a "More" b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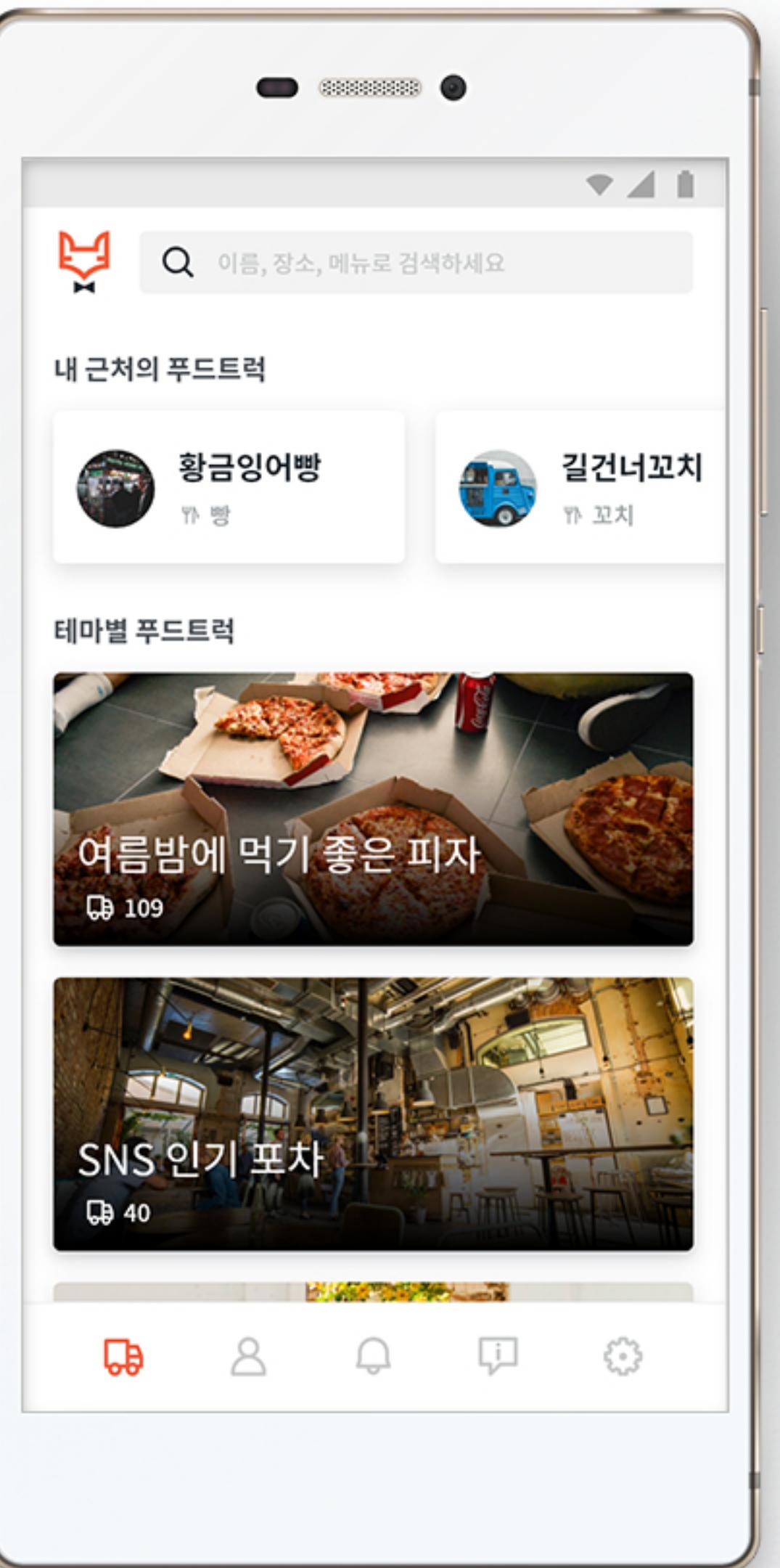
# 낭만 트럭

on 2018  
Personal Project

“거리에서 가장 즐거운 레스토랑. 어서오세요, 낭만 트럭입니다.”

달콤한 붕어빵이 끌리는 추운 겨울, 왜 붕어빵 트럭과의 조우를 우연에 맡겨야 할까요? 낭만 트럭은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푸드 트럭 문제를 현대적으로 해결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는 가까운 푸드 트럭, 원하는 푸드 트럭, 그리고 흥미가 생긴 푸드 트럭을 무리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회성에 가까웠던 기존 푸드 트럭 점주-고객의 관계를 지속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능까지 제공, 점주와 고객 모두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고안하였습니다.

낭만 트럭은 푸드 트럭을 우연이 아닌 일상의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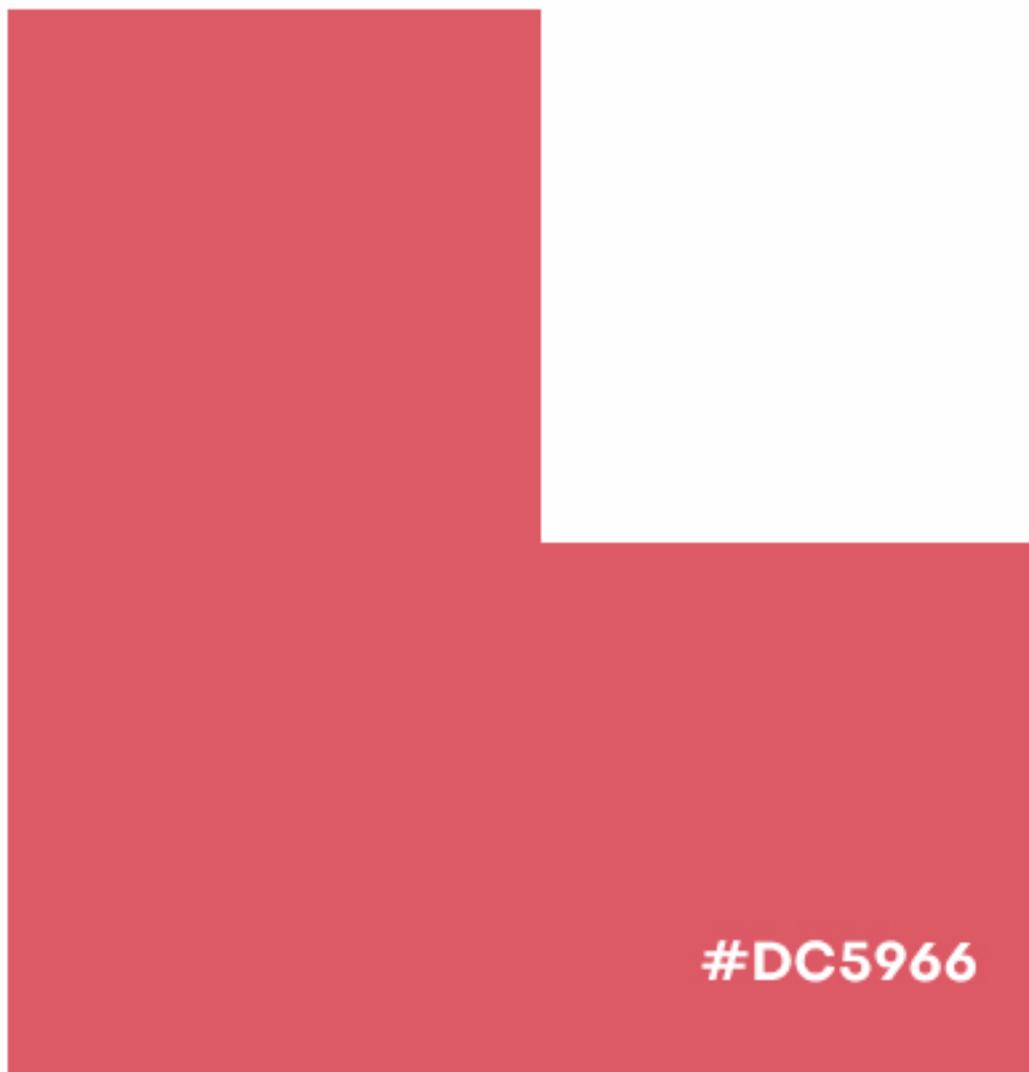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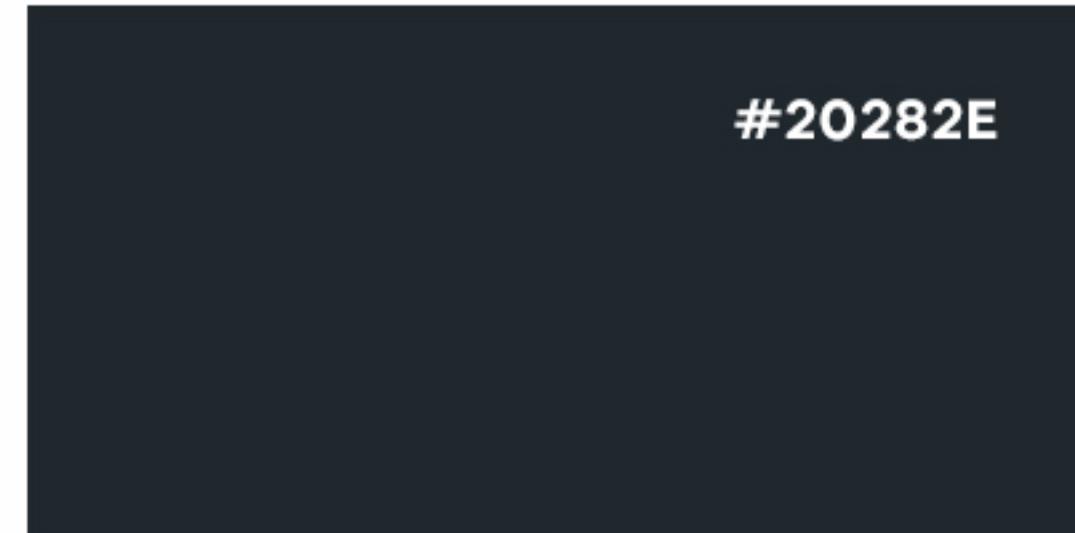
#EF5C3C



#FFAA24



#DC5966



#20282E

## 색상

“거리에서 가장 즐거운 레스토랑”이라는 낭만 트럭의 신조에서 엿볼 수 있듯, 낭만 트럭은 작은 일상을 꾸려가는 사용자의 즐거운 경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활기차지만 결코 산만하지 않은 시나리오, 밝지만 절대 날카롭지 않은 목표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낭만 트럭의 색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 가지 주력 색상과 두 가지 보조색상은 모두 난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낭만 트럭 특유의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 타이포그래피

낭만 트럭을 디자인하면서 한글에 대한 많은 실험을 병행했습니다. 로마자로 만든 UI를 한글로 변형하면 아귀가 들어맞지 않은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문자·단어·문장을 비교해본 끝에 한글이 가진 정사각형의 모양새가 그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형태가 로마자보다 한글이 비대하게 보이는 까닭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의 크기는 절제하고, 세로로 약간 기다란 직사각형을 모양새를 가진 Noto Sans를 사용하였으며, 얇은 굵기의 서체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낭만 트럭은 이전보다 오밀조밀하고 구분성 있는 디자인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헤드카피 24px Black**

**큰 제목 21px B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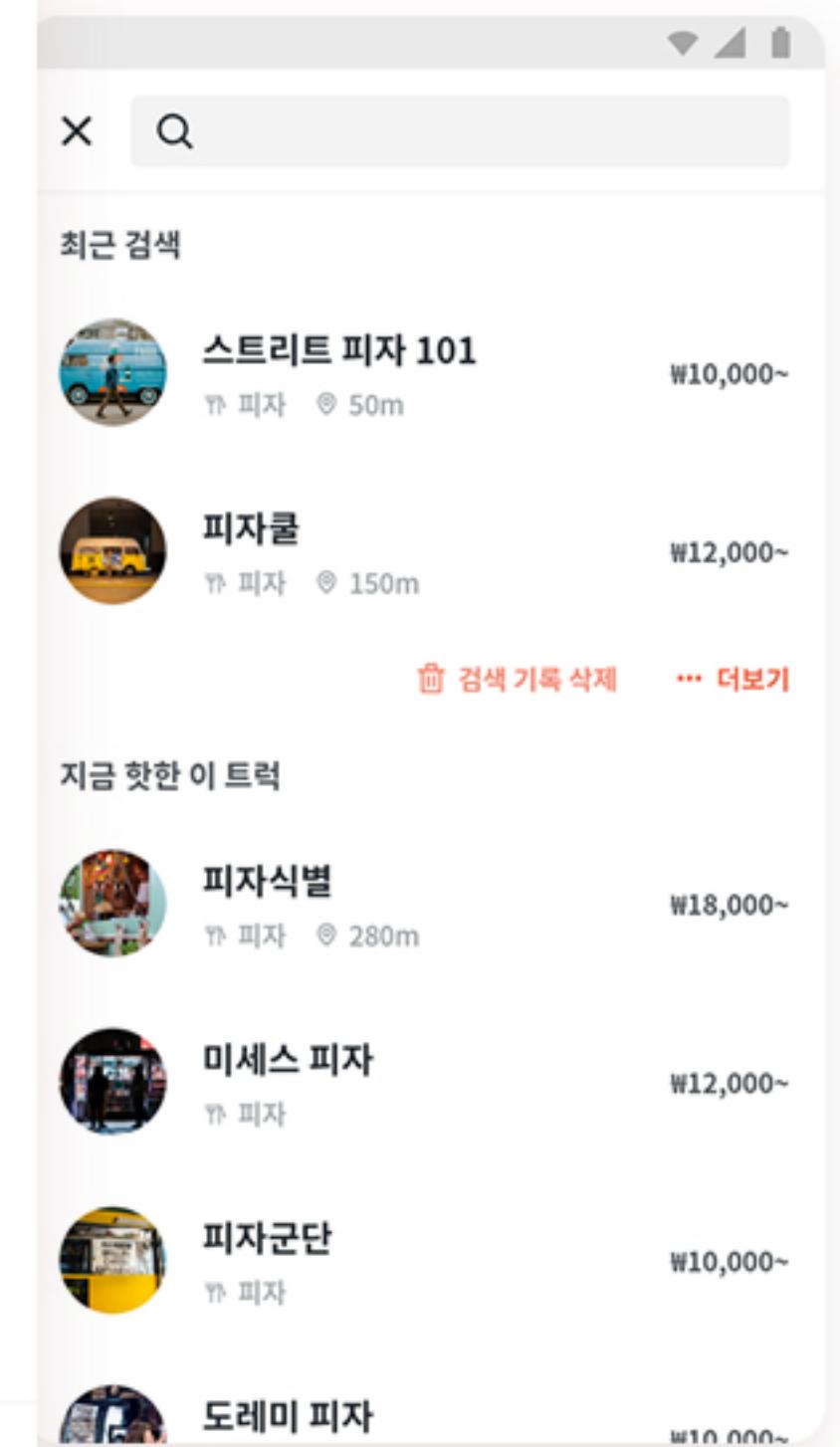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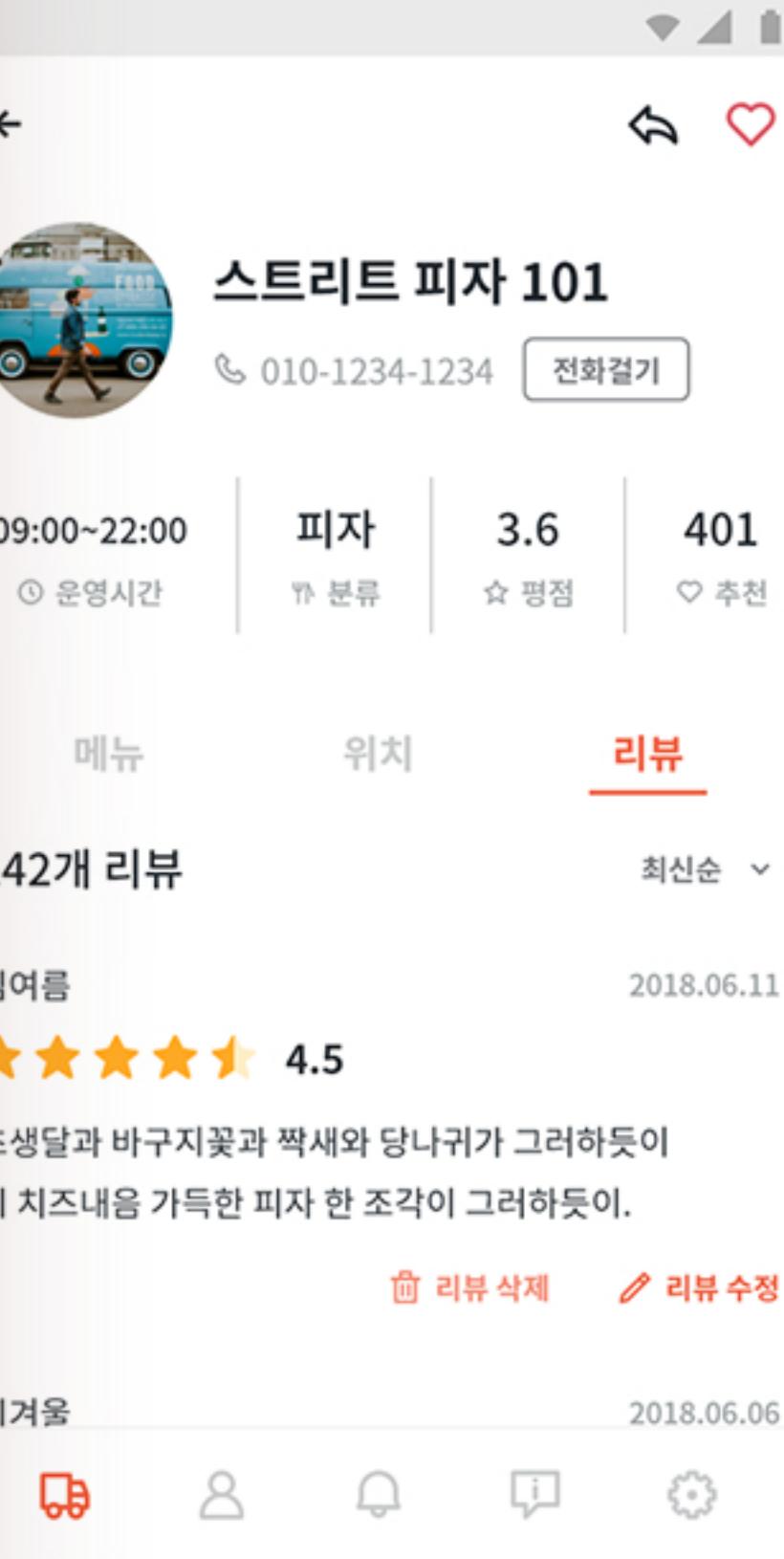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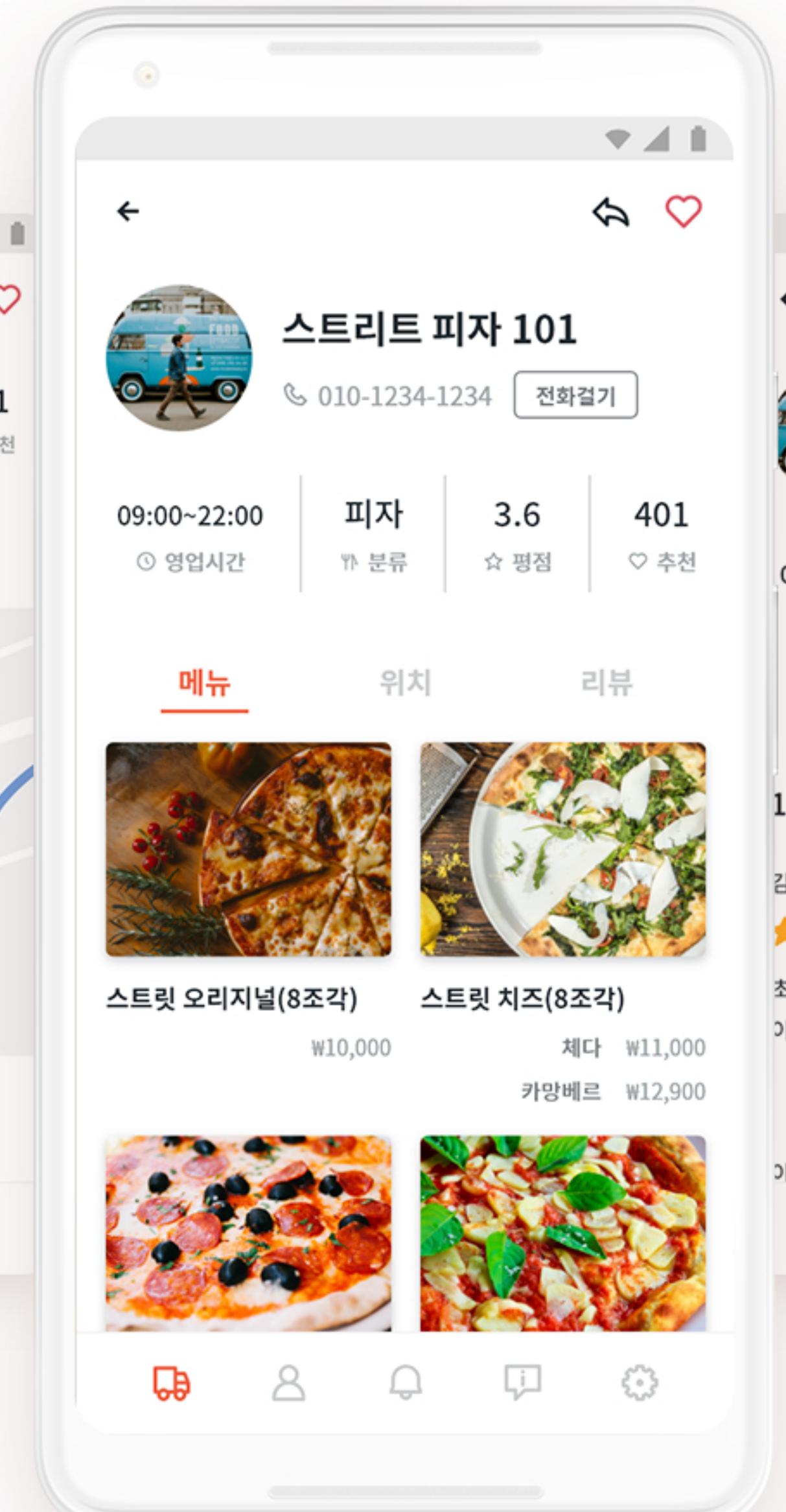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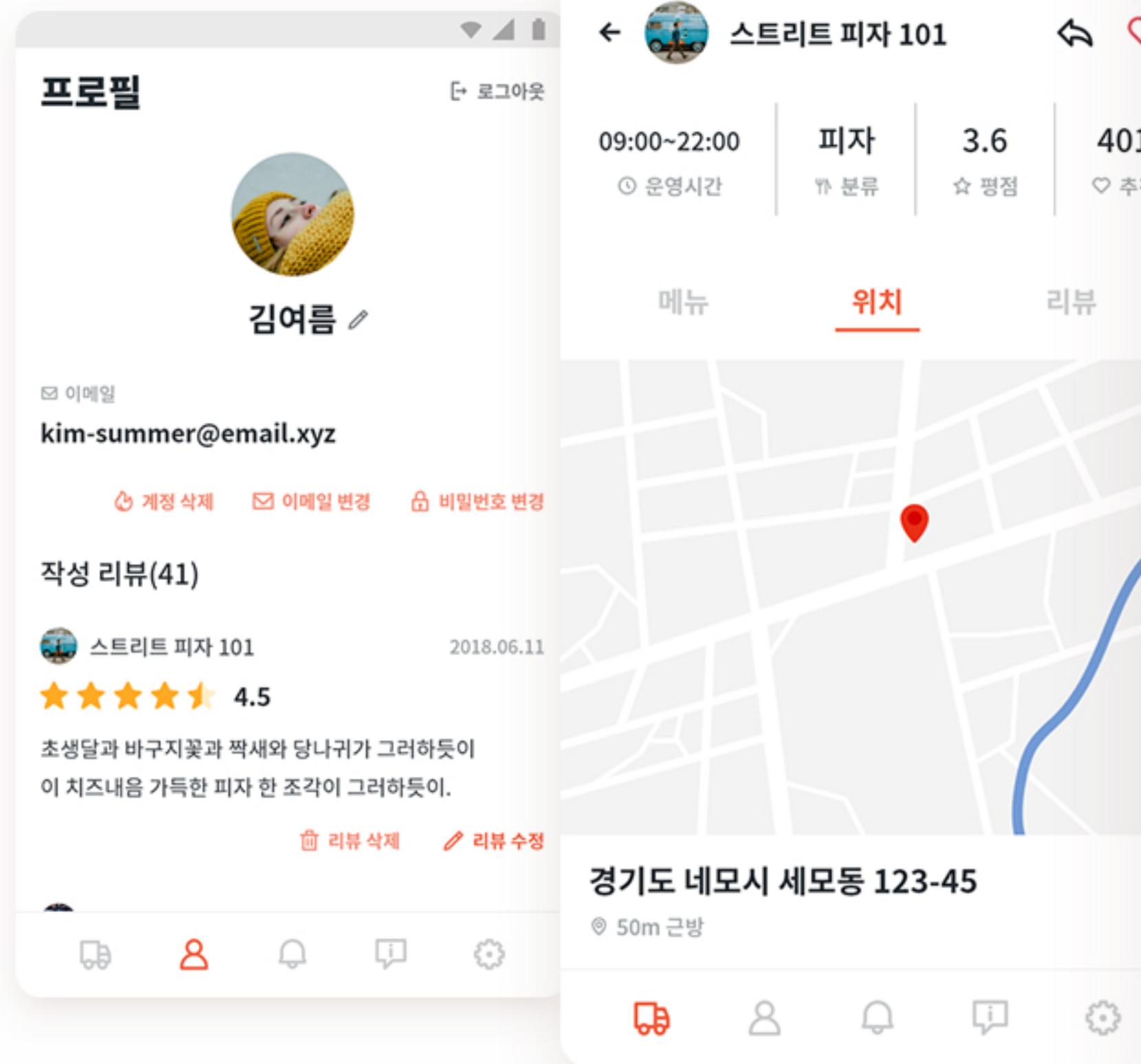
**중간 제목 18px Medium**

**작은 제목 16px Bold**

**본문 14px Regular**

**표제 12px Bold**

**작은 본문 12px Medium**



**편향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할 이유, 대비**

좋은 디자인은 보기 쉬운 디자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소를 불균형하게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비를 고려하면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 뒤 흐림**

클릭 뒤 흐름 효과지만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그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블러의 사용법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선과 공백의 컨텐츠 커팅식**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구분선과 공백은 요소와 요소, 컨텐츠와 컨텐츠를 분리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같은 듯 다른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봅시다.

# 디자인 티타임

o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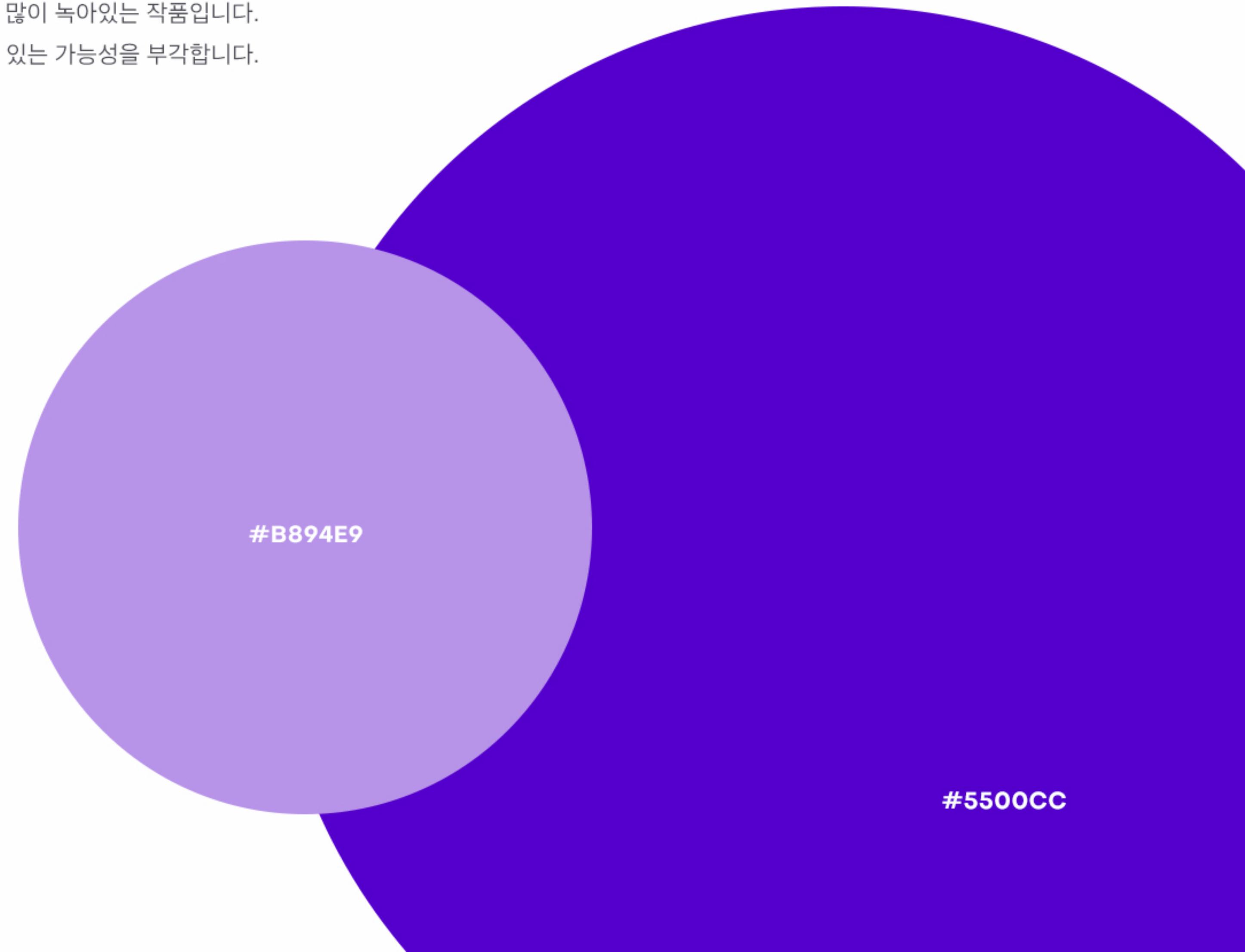
Personal Project

## 차 한 잔에 이야기 하나가 함께하는 디자이너의 공간

차 한 잔에 이야기 하나를 곁들이는 공간, 이곳은 디자인 티타임입니다. 얼 그레이든, 아이스티든, 루왁 커피든, 믹스 커피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건 차와 이야기에 어울리는 여유뿐입니다. 얼핏 고상해 보이는 디자인 티타임은 듀오톤 색상 시스템을 기반으로한 깔끔하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 것에 최적화된 이 공간에서 사용자는 디자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색상

저의 창조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디자인 티타임에서 활용한 색상은 역설적이게도 절제된 듀오톤이었습니다. 이는 저의 디자인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섞여있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의 가치를 쫓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디자인 티타임은 이런 철학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프러시안 블루 계통의 주력 색상과 이를 보조하는 연보라색은 일정한 가치, 생동감 있는 가능성의 부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대화는 이런 가치와 가능성 위에서 재현됩니다.



Renner\* Light

Renner\* Medium

Renner\* Book

**Renner\* Bold**

*The Perfect  
Beauty.*

## 타이포그래피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진 서체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Futura를 선택할 것입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가독성과 독창성을 갖춘 지오메트리 산세리프입니다. 디자인 티타임의 헤드 카피 서체로 Renner\*를 고른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Futura의 신선함을 그대로 웹상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개성과 완전성을 나타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서체였습니다.  
한글 서체는 Spoqa Han Sans를 택했습니다. 글을 읽는 공간이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읽히는 서체가 필요했습니다. Spoqa Han Sans는 거기에 꼭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준환 Lee Jun-hwan

📞 010-2855-3075

✉️ dewberryneun@gmail.com

👉 dewberry9.github.io

Behance.net/dewberry9

